

## 희망의 우승컵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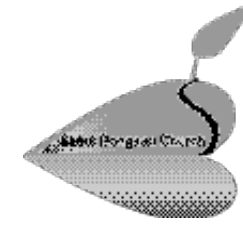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네팔(정정영, GMD) 요르단(양일주, 김현숙) 중국(이정삼, 유인영, 유혜경, 김성남, 김선화) 카자흐스탄(최진규) 터키(강그레이스) 파키스탄(Zaman Anjum) 푸에르토리코(김해진, 한희숙) 기독교보 월간고신 기독교북한선교회 해외로복지재단(북한선교재단) 중동선교회 한민족복지재단(북한행공장)

### 구역이 지원하는 선교지, 기관 그리고 교회

중국(김정국 - 청1 / 이산지 - 청2, 청5) 터키(진요한 - 청4, 청6, 노원1, 노원3) 필리핀(정순성/손은경 - 창국, 중랑1, 성북1) 광둥교회(박익서 - 노원2, 장우) 군산 성북중앙교회(최상권 - 북부, 성북2) 사랑의 교회(김희준 - 청9) 회정교회(오수목 - 소망, 남부) 양평성장교회(도봉1) 황성장로교회(조원래 - 중랑1, 중랑2) 교회개혁실천연대(도봉2, 청7) 수도권미세교회포럼(영선)



## 하나님을 향한 프리포즈 (룻3:7-18)

김대진 목사

룻이 보아스에게 프리포즈 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9절)”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프리포즈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프리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미혼 여성들은 멋진 프리포즈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룻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프리포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룻은 했습니다. 룻의 행동에 보아스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룻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룻은 젊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9절)”라고 프리포즈 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주님의 날개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프리포즈 이전에 이미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도록 이삭을 흘리고 룻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스가 은

혜를 베풀어도 룻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룻은 여인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임하였다

L · o · v · e · l · y · · · C · h · u · r · c · h · · · w · i · t · h · · · J · e · s · u · s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4장12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도 칭찬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도 룻의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리포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프리포즈를 받으셨습니까? 프리포즈의 내용이 어떠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프리포즈를 대항해주는 회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몇 십 만원을 내면 광화문 사거리 전광판에 프리포즈 내용을 몇 초 동안 소개해 준답니다. 용기가 없으면 프리포즈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룻의 프리포즈는 어디에서 용기가 나왔을까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10절)” 룻이 프리포즈할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혜를 베풀어도 룻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삭을 줍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앞에 다 흘려놓은 은혜를 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에 용기 있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 사랑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열리지 않는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룻처럼 보아스의 은혜를 깨닫고 프리포즈하는 용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프리포즈 하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놀랄 정도로 과감한 프리



오늘 3부 순서 기대해 주세요!!

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룻이 프리포즈 했을 때 당장에 결혼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10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도 때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18절)” 정녕 때가 되면 이루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룻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설교 하이라이트) 예수사랑

# 사 · 랑 · 과 · 은 · 헤 · 가 · 넘 · 치 · 는 · 예 · 배

주일 1·2부 예배 1부: 9시 30분/2부: 1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입례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로의 부름

기도인도 1부 백성칠 집사  
2부 정재만 장로

찬송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서교독 제38문 이사야 42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헌찬송 356장 성자의 귀한 몸 (1부)  
이삼중창단 (2부)

봉헌예물

봉헌기도

\*말씀봉독 룻기 4:3-12 (구 406면)

찬양 1부 호산나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광고&성도의 교제

말씀선포 "손해보는 믿음"

헌신의 기도

\*폐회송영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축도

\* 표는 헌신의 뜻으로 일어섭니다.

교독문 제38문 이사야 42장

인도: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회중: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인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  
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회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인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러니

회중: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인도: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회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인도: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다같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일3부 연합찬양예배 오후 2시 30분

인도 김준석 강도사  
기도 엄학근 집사

성경 엡 4:11-15 (신 313면)

특송 청년부 일동  
설교 박 신 강도사

"건강한 성도"

축도 김대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요나의 함정"

성경 온 4:1-11 (구 1289면)

설교 김준석 강도사

기도 이나영 집사

가족찬양 성양식 집사

찬송 93장, 404장, 336장

목요일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 김대진 목사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설교 이우리 전도사

기도인도 김대진 목사

찬양인도 김준석 강도사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김대진 목사

## 동 산 소 식 - 2007년 교회표어 :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라! (고후 5:9)

1.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 123특새 - 11월 특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속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삼중창단 발표회 -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 후에 아삼중창단이 축하발표회를 가집니다.
4. 정기제직회 -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5. 하반기 구역장 수련회 - 11.6(화) 광림수도원에서 가집니다. 출발 10시 예정.
6. 하반기 학습·세례식 - 11월 18일 2부 예배시  
- 교육: 주일 오전 10시 8층 새가족부실 (문의: 김성애 전도사)

7. 동산FC 비전컵 우승 - 제1회 비전컵 어린이 축구대회에서 동산FC가 (공동)우승 하였습니다. 열렬한 응원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목요일예배 - 매주 목요일마다 국민은행과 하나로마트 입구에서 1시간 동안 전도합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실 분은 오후 2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주 헌신예배 - 마리아여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 11월 봉사위원

- 안내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권사 정동4/정동5구역
- 헌금위원 1부 정효기 집사 양인심 집사 • 2부 최병두 집사 육수남 권사

### 다음주 예배기도당번 (11.11)

- 1부: 김중국 집사 • 2부: 오정만 장로
- 3부: 마리아헌신예배 • 수요일: 이정옥 집사

### 예배모임안내

• 주일 1부	09:30	7층	• 영아부	11:30	6층
• 주일 2부	11:30	7층	• 유치부	09:30	6층
• 주일 3부	14:30	7층	• 유초등부	09:00	6층
• 목요일예배	13:30	7층	• 중고등부	11:00	6층
• 노방전도(목)	14:30	6층	• 청년부	13:30	6층

### [11월 목회계획]

- 11월 마리아헌신예배
- 18일 추수감사주일 룻헌신예배 학습세례식 성찬식
- 25일 요한헌신예배 정기총회 성탄준비위원회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 사랑의 동산

### 변화없는 그리스도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기 전과 비교해서 별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은 고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은 평소에 가장 중요시하는 돈 문제나 직장 문제와 사업과 건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서 오는 삶의 문제로 고통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외형적인 삶의 문제로 고통 받게 될 때 그 고통은 마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소위 낮은 자존감 속에 둘러싸인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데 따른 좌절감이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 상처가 비뚤어진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파멸을 가져다줍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삶의 허무함을 호소하게 되겠지요.

영적인 고통 역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감격이 없고, 순종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립니다. 이 같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가장 먼저 삶의 현장인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깨지면서 종종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야말로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상처로 마음이 비뚤어진 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이기심으로 변질된 마음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처가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만 하는 나의 이기심의 죄악이 끌어들이는 것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치유될 때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 copyright@ 가정을 낳는 가정 "강안삼의 가정편지" -

## 사랑이 넘치는 서울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산교회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루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고신교단에 속해있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서울동산교회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 ▶ 어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복음의 동산

유대인도 헬라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자도 죄인도 병자도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오를 수 있는 나지 막한 동산이 되기를 바라며 복음의 능력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꿨다.

### ▶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좌우 한 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훈련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름 같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꿈꿨다.

### ▶ 미래를 향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며 노인과 청년이라는 두 그룹의 사역에 집중 함으로 중형교회로서 특화된 사역을 감당하는 치유 공동체, 사역공동체를 꿈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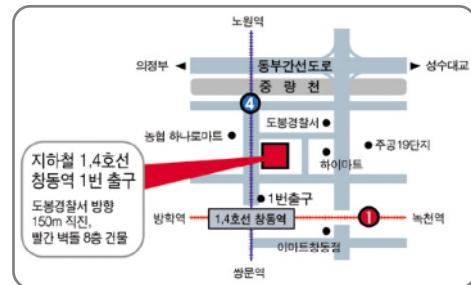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대진  
시무장로: 최병호 정재만 오정관 백동선  
피택장로: 김성용 문용현  
은퇴장로: 강장환  
부교역자: 박 신 강도사(교육/행정/학사관/1교구)  
김준석 강도사(음악전담/인턴넷/2교구)  
김성애 전도사(심방/새신자부/7초양육)  
이우리 전도사(중고등부/청년부)

### ■ 서울동산교회 안내

주소: 우)132-899,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4-4  
전화: 02)900-2232  
홈페이지: www.dongsan21.org

(찾아 오시는 길)



균형잡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